

## "선사.컨리스사 국제협의체 COA 탄생"

이사람/ 전병진 한진해운 장비관리팀 상무(COA 운영위원)

"선사.컨리스사 국제협의체 COA 탄생"

3월말 발족준비 1차회의, 연내 창립총회 준비  
전병진 상무 운영위원에 위촉, 국제적 맹활약

세계 컨테이너 보유업자들이 컨테이너관련 기술과 운영에 관한 공동연구와 협력, 개발, 표준화를 통해 비용절감이라는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컨테이너노너협의회(COA:Container Owners Association) 발족을 추진하고 있다.

3월 24일-2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SAS Radisson Hotel에서 3박 4일간 진행된 COA 발족 1차회의는 컨테이너 임대사인 Capital Lease사 주최아래 12개 선사, 3개 임대사 및 2명의 프리랜서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

이번회의에 참석한 회사의 컨테이너보유율은 전세계 컨테이너(약 1700만teu)의 30%가량을 점유하고 있어 동 협의체가 발족되면 컨테이너 공급업계의 기술과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COA 발족회의에 참여한 선사는 한진해운을 비롯해 현대상선, MaerskSealand, CMA CGM, P&O Nedlloyd, APL, CP Ship, Hapag Lloyd, UASC, CSAV, DAL, Hamburg Sud 등 12개사이며, 임대사로는 Capital Lease, Ge Seaco, Gateway 등 3개사가 참여했다. 국적선사중 한진해운에서는 전병진 장비관리팀 상무와 구주지역본부 M&R매니저인 Erich Gottschak씨가 참석했는데, 전병진 상무는 이번 회의에서 6명으로 구성된 COA 운영위원회 위원에 위촉되는 활약상을 보였다.

전병진 상무는 "현재 컨테이너산업은 신조 자재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안정적인 장보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며,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생산국인 중국의 CIMC 독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선박대형화 및 미국의 안전규제 강화에 따라 컨테이너 보완 및 자체강도 강화와 친환경적인 컨테이너 부품 개발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상무는 컨테이너산업이 직면한 당면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관업체간 協業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속에 기존의 컨테이너관련 협의체들의 활동이 특정업계와 특정지역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점을 드러내 컨테이너를 보유하고 있는 선사와 리스사가 함께 모여 COA 발족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전세계 컨테이너 보유비율은 선사오 임대사 비율이 54:46임을 감안할 때 양 업계를 포용하는 협의체이자 특정지역에 국한된 협의체가 아닌 국제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장비기술 표준화의 '공공 연구장'이 필요했다고 전상무는 COA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장비운영과

교환 및 선복교환을 통한 글로벌선사의 토탈 물류비절감에 대한 필요도 COA의 발족환경으로 작용했다.

전세계 선사와 임대사를 망라한 채널로서 장비관련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발족하는 COA는 관련사항의 전문가 포럼을 형성, 표준화와 간소화작업을 추진하면서 컨테이너소유자들의 공동연구를 통해 공급체인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COA는 아시아선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2차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하반기에 계획돼 있는 '코펜하겐 Intermodal Show'에서 창립총회를 갖기로 합의했다.

COA는 비영리조직으로 회장직과 운영위원회, 각 프로젝트팀으로 구성키로 했으며, IMO에 정의돼 있는 컨테이너 소유주면 회원참여가 가능하다.

COA는 앞으로 △신조사양 표준화 △생산 표준화 △수리관리 표준화 △연구개발 △컨테이너 안전관련 △IT △컨테이너 운영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그러나 동협의체는 컨테이너 운영과 기술중심의 협의체로서 상업적인 영향력은 없다.

COA의 활동방향에 대해 전병진 상무는 "아시아 선사들의 영업물량 확대와 아시아 컨테이너 관련산업 약진에도 불구하고 각종 국제협의체에서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며, 유럽 선사 위주의 기술 표준화 및 관련법규 제정, 미국의 독단적 안전규제 강화 법규 제정 등 미국과 구주지역 산업보호 및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한진해운이 아시아 대표선사로서 각종 협의체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상무는 "한진해운은 COA 운영위원회 멤버로서 컨테이너업계의 opinion leader인지를 구축하는 한편 CKY그룹 및 아시아지역 선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동현안에 대한 공조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이번 COA 산하의 프로젝트팀은 팀장 등 관리자가 아닌 실무진 중심으로 구성해 기술연구와 장비운용 방안 모색시 실질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04-04-14 이인애]

[기사목록](#) [프린트](#) [뒤로](#) [가+](#) 크게보기 [가-](#) 작게보기

© 한국해운신문 (<http://www.maritimepress.co.kr>)

이 기사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한국해운신문 주식회사에 있으며,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한국해운신문(주)**

대한민국 제1의 해운매체 | 100-230 서울 중구 수표동 56-9 대동B/D 303 TEL 02)2285-5571~4  
Copyright 1996-2005 한국해운신문 All rights reserved